

# 니가 궁금해, 신정현

## 고양시 사람도서관 리드미 READ ME

### 우리 동네 살맛나게

마을 공동체 청년운동이라 하면 될까요?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정확히 무엇을 한다고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삽니다. 서울은 청년들이 모이기 참 쉽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사회에서는 청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이라는 블랙홀에 인근 지역 청년들은 찾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인근 지역의 청년들은 그곳에 살아도 대부분 서울에서 생활하지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 몇몇 지인들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그저 같은 지역에 사는 청년들을요. 이름도 모르는 청년 여덟 명이 모여 서로 자기소개부터 했어요. 무엇을 해 볼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 보고 싶었던 일인 사람도서관이라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것이 벌써 2013년이네요.

### 이야기가 된 사람, 사람도서관

매주 두 명씩, 한 시간 정도 각자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 주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2014년 9월부터 시작한 사람도서관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을 경청해요. 그렇게 공감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가족들에게도 인생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고 서로의 꿈을 응



BE+Live+tr,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기, 그렇게 살아가려 부단히 애쓰는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지향하는 목적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공동체의 목적이 된 거죠. 각자의 이야기가 사람책이 되고 그런 책이 모인 사람들, 바로 사람도서관입니다.

#### 사람을 읽다, 리드미READ ME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소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 대화와 경청만큼 중요한 것은 없구나 싶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들으며 나의 고민과 맞춰 보고,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여덟 명의 지역청년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이제는 스무 명에 이르는 기획단, 리드미가 되었어요. 화요일마다 각자의 일과를 끝내고 모여 다음엔 무엇을 꿈꿀까 이야기하죠. 2015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시작한 고양시 사람들의 이야기는 벌써 17권의 사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평범함의 특별함을 나누다

그러다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하면 어떨겠냐는, 학교에 대단한 삶, 또는 위대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아주 평범한 옆동네 아저씨, 옆집 누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자리말이에요. 사람 책을 읽는 자리에서 어떤 한 학생이 이런 후기를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아주 유명한 인문학 특강의 대가들에게도 얻지

못한 공감을 옆 동네 누나의 삶에서 격하게 느꼈고 위로 를 얻었다고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이 빛을 발한 것이죠.

#### 서로가 서로의 꿈의학교

리드미 중 대안교육을 꿈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꿈의학교라는 교육정책이 있어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 밖 학교인데, 엄마아빠는 모르는 꿈의학교 비밀기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신청했어요. ‘누구도 선생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된다’는 구호를 정하고 처음으로 학생들을 만난 날, 하고픈 것, 배우고 싶은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 보도록 했어요. 다들 망설였지만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랩으로 만들고 싶다, 드론을 만들어 보겠다 등등 여러 꿈들이 적혔죠.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적어 보게끔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더니 수십 장의 포스트잇이 쌓이더라고요. 이를 카테고리 별로 나눠 보니 배우고픈 것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나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배우기도 하는 꿈의학교가 탄생했지요.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라면 학교에 매일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꿈의 학교가,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이 이뤄지기도 했죠.

또 다른 청년은 마을 농부를 꿈꿉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자를 캐 보기도 했고요. 한 평의 땅에서 나오는 채소로 가족 4명이 먹을 수 있다는 동네 농부 아저씨들의 말씀에 올해는 농부학교도 시도해 보려 합니다.

대안 미디어에 꿈이 있는 청년은 마을문고를 찾아가 작은 공간을 준비하고 청년 라디오, '라도미'를 준비하고 있어요, 책을 한 번 써 보고 싶다는 청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꿈의학교가 되고 있어요.



### 청년을 위해 청년이 만든 고양시 청년기본조례

리드미들은 이런 감동 어린 시간들을 겪으면서 활동가가 되고, 서로의 꿈에 대한 관심으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쌓은 우리는 모일 때마다 겪는 공간의 문제로 우리를 위한 공간에 대한 고민, 우리 마을은 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인터넷을 보니 서울시에서는 청년허브, 무중력시대 등 청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 접합 문화와 공연 등이 있더라고요. 함께 탐방도 해 보고 고양시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청년들이 주거, 부채 등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음알음 아는 분들을 통해 브라질 공동체를 취재하고 온 기자의 이야기를 사람 책으로 들으면서 또 다른 청년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고양시 청년기본조례'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청년조례, 단순히 일자리 부족만이 청년 문제의 대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 보자, 단순 일자리 문제를 넘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해 청년정책의 기틀을 만들어 보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권도 보장하고, 능력 개발, 고용 확대, 문화 활성화, 청년 공간 마련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운동은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되었습니다.

### 목적어 없는 청년운동, 우리는 '니가' 궁금해

대부분의 운동movement은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목표를 성취하면 그 운동은 끝나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 공동체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니가 궁금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운동은 목적이 실패하면 와해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저희에게 가장 큰 사회 안전망은 사람들이예요. 따뜻한 마을 공동체, 우리 사람 안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

### 우리가 궁금해?

고양시사람도서관 리드미 : <http://blog.naver.com/youreadme>  
페이스북 페이지 : 리드미